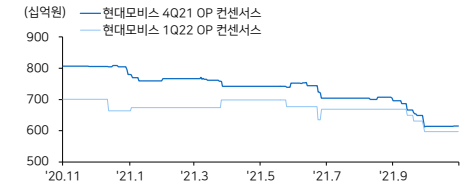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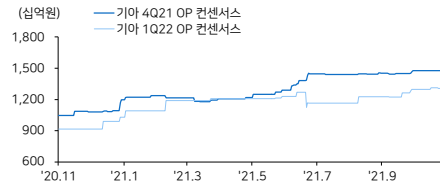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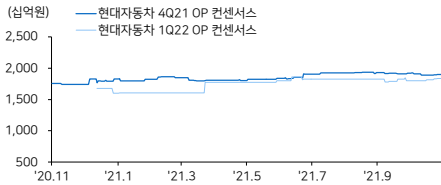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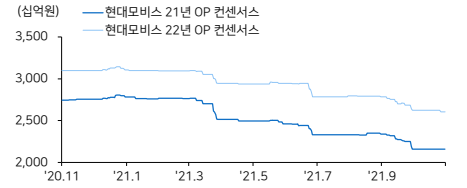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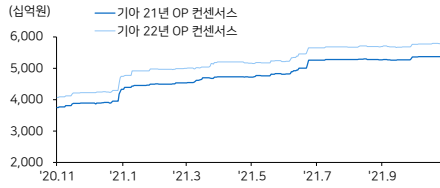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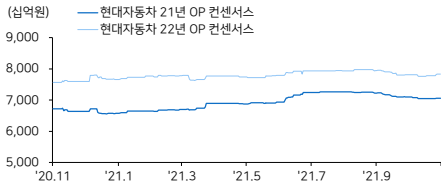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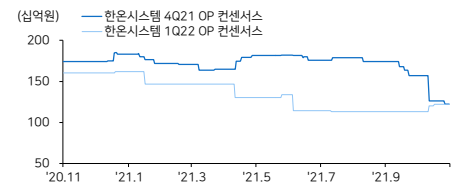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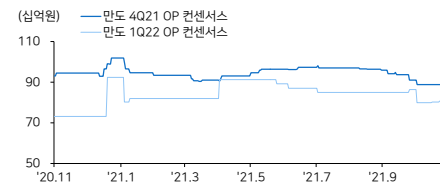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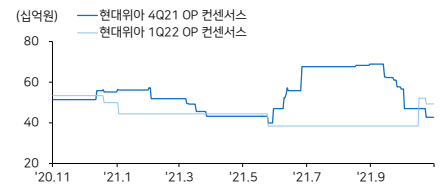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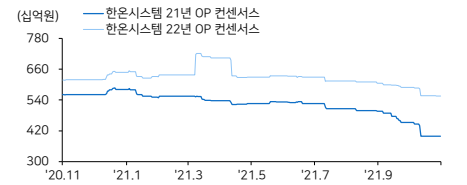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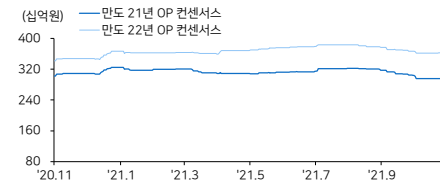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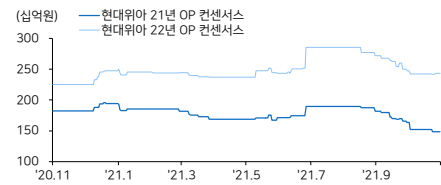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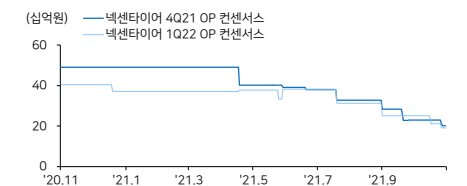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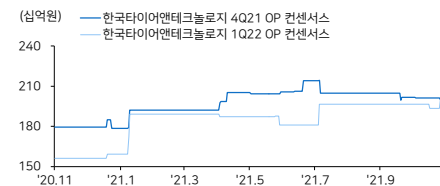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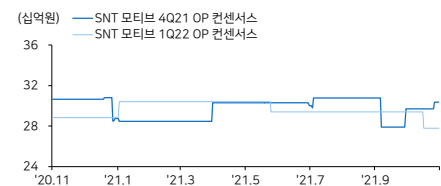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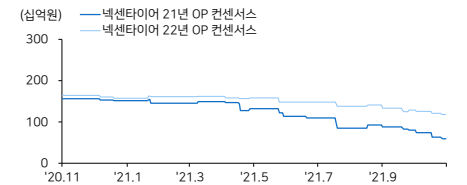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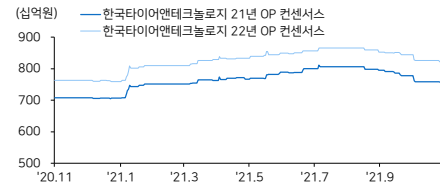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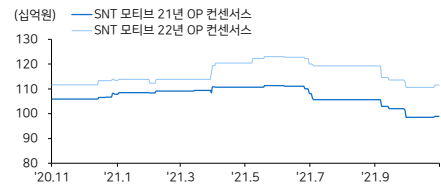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내년 신차 '전기>내연' 첫 앞자리다 (아시아경제)

현대차는 내년에 최소 5종 이상의 전기차 신차를 출시할 전망이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시.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신차 출시가 내연기관차 신차 출시를 처음으로 앞지를 전망이다.
<https://bit.ly/3rstSJC>

현대차, 탈연진 속도...상상 첫 친환경차 年10만대 판매 (한국경제)

현대자동차가 올해 국내 시장에서 최초로 친환경차를 10만대 이상 판매할 전망이다. 차종별로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 기아도 올해 안에 친환경차 연간 판매가 1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bit.ly/31gXZsC>

VW expects battery, raw material drive to cost up to \$34 bln (Reuters)

VW는 유럽 배터리 셀 공장을 계획하고 필수 원자재를 확보하는 데 300억 유로(340억 달러)가 들 것이라며, 자금을 조달할 외부 파트너를 찾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VW는 향후 10년간 6개의 배터리셀 공장을 건설하여 가동할 계획 중.
<https://reut.rs/3IMzILN>

Tesla continues to establish pole position in Norway (Teslarati)

모델 Y는 11월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로 한 달 동안 1,013대가 판매됨. 모델 3는 771대로 2위, 폭스바겐 ID.4는 725대로 3위에 올라섬. 11월 노르웨이 친환경차 판매 비중은 73.8%를 기록함.
<https://bit.ly/31dVL9>

유럽 달군 현대차, 도요타 턱밑 추격... 정의선 미래차전략 통했다 (디지털타임스)

현대차는 지난 10월 유럽 시장에서 4만3629대를 팔아 시장 점유율 5.5%를 기록했으며, 이는 도요타(5.6%)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 토요타가 반도체 부족으로 하반기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으며 점유율이 하락함.
<https://bit.ly/3pg2Wdr>

전세계 수소차 판매 현대차 54%로 독주...도요타와 격차 확대 (뉴스1)

올해 1~10월 전 세계 수소연료전지차 판매에서 현대차가 점유율 50%를 넘기며 독주 체제를 이어감. 도요타는 미라이 2세대 신모델 판매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부터 현대차에게 1위를 내준 이후 다시 1위로 복귀하지 못함.
<https://bit.ly/3G3qMjs>

Tesla releases new footage of auto labeling tool for its self-driving effort (electrek)

Tesla AI 책임자 Andrej Karpathy는 자율주행을 위한 오토 라벨링 영상을 공개함. Karpathy는 이 기술의 배포가 아직 초기 단계이며, 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 영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예상됨.
<https://bit.ly/3d7Uxmd>

Stellantis CEO says EV cost burden is 'beyond the limits' for automakers (Reuters)

Stellantis CEO는 '정부와 투자자들이 완성차 업체에게 EV 전환을 가속화할길 원하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계를 넘어가고 있다'고 언급. 기존 차량에 비해 50%의 추가 비용이 부과되나, 이를 소비자에게 이전할 방법이 없다는 것.
<https://reut.rs/32Rd70d>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